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6> 열반 얻을 중생은 없다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은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마음은 지극한 자비심이 드러난 것으로서 보살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의 깨달음이 완성되었다면 이 세상 중생이 모두 제도된 것이다. 그러나 그 실상은 공성(空性)이니, 텅 빈 성품 속에 따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선가귀감> 36장에서 말한다.

菩薩이 度衆生入滅度나, 又實無衆生得滅度니라.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여 멸도에 들게 하나 실로 멸도할 수 있는 중생은 없나니라.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인 말이다. 보리(菩提)는 '깨달음'이나 '지혜' '도(道)'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살타(薩埵)는 '중생' 또는 '유정(有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살을 각유정(覺有情) 대각유정(大覺有情) 도심중생(道心衆生)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위로는 밝은 지혜로 부처님의 세상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따뜻한 자비로 모든 중생을 보살피며, 온갖 보살행을 완성함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수행자를 말한다. 밝은 지혜로 부처님의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수행이고, 따뜻한 자비로 모든 중생을 보살핀다는 것은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보살행이며, 보살이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은 자신의 수행과 보살행이 완성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살의 삶은 자신의 수행에만 치중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의 삶보다 더 뛰어나다고 본다. 보살 가운데 아주 공부 잘하는 큰 보살한테는 '마하살(摩訶薩)'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나 '마하살타' '보살마하살' '보리살타마하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마하'의 뜻은 '크다'이다.

'보살이 실로 멸도할 수 있는 중생은 없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멸도(滅度)란 번뇌의 또 다른 이름이다. 활활 타오르던 번뇌가 다 연소되어 사그라진 상태이니,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 더 이상 없앨 번뇌가 없다. 더 이상 없앨 번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도할 중생이 다 사라진 것이다. 깨달음이 완성되어 깨달음을

번뇌가 다 사라지니 추구할 깨달음이나 제도할 중생 없는 것

추구하는 '나'와 없앨 '번뇌'가 사라진 이 자리에서는 추구할 깨달음이나 제도할 중생조차 없는 것이다.

육조 스님도 <육조단경>에서 '네 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四弘誓願)을 설명하면서 중생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을 스스로가 제도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즉 보살이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한 중생들은 모두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지 다른 보살이나 부처가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란 마음속에 있는 중생으로서 어려서고 사된 마음, 허망하고 황당함 마음, 착하지 않은 마음, 잘못하는 마음, 독하고 악한 마음, 이런 마음 모두를 함께 말한 것이다.

저마다 자신의 성품에서 스스로 이 마음

들을 제도해야 '참으로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니, 무엇이 '자신의 성품에서 스스로 이 마음들을 제도한다'는 것인가? 이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있는 사된 소견과 번뇌, 어려서는 중생들을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바른 견해가 있다면 반야지혜로써 어려서는 중생들을 깨우쳐야 한다. 저마다 스스로 제도하되 사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한 경계가 오면 깨우침으로 제도하며, 어려서는 경계가 오면 슬기로운 마음으로 제도하고 악한 것이 오면 착한 것으로 제도하는 것을 '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서산 스님이 하신 말씀과도 그 뜻이 통한다.

菩薩 只以念心 爲衆生也 了念體空者 度衆生也 念既空寂者 實無衆生得滅度也.

보살은 오직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를 중생으로 삼을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바탕 그 자체가 텅 비어 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이라면 실로 멸도할 수 있는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선가귀감 언해본> 주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성품에 있는 중생을 밝힌 것이다. 마음은 본디 적멸(寂滅)이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생과 부처 또한 그 모습이 적멸이다. 마음의 작용에 이르러서는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계(戒)이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정(定)이며,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지(智)이다. 마음에 단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智)이고 맑이 어둠이 없는 것이 관(觀)이며, 편한 마음으로 이치를 잘 아는 것이 인욕이고 마음에 이런 모습이 끊어짐이 없는 것이 정진이다"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부처요 어려서 온 사람은 중생이며 자비로운 보살은 중생들을 제도하며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모든 법을 깨달아 통달하는 것이며 원력은 보살행을 삼없이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해나가야 할 일이다.

■원승 스님(승광사 인월암)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선사, 종사, 화상

스님에 대한 존칭은 많습니니다. 존칭은 대체로 그 스님이 주로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붙여집니다. 참선을 주로 한 스님에게는 '선사(禪師)', 계율은 '율사(律師)', 경전은 '강사(講師)', 강백(講伯)이란 존칭을 씁니다.

물론 전공과 관계없는 존칭도 있습니다. 조사(祖師), 종사(宗師) 대사(大師), 화상(和尙) 등입니다. 조사는 한 종파를 창시한

스님, 종조(宗祖)나 종흥조의 경우에 씁니다. 종사는 한 종파의 업적을 계승·발전시켜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에 널리 잘 전한 스님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대사는 덕이 높은 스님, 화상도 스승이란 뜻으로 역시 덕이 높은 스님에 대한 존칭입니다. 여기에 '대(大)'를 붙여 대종사, 대화상이라고도 쓰는데, 회교의 존칭입니다.

이런 존칭은 고려시대에 형성된 '승계(僧階) 지금은 법계제도'와 크게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승과시험에 합격한 스님만이 선사 등의 칭호를 쓰게 됐고, 그 칭호만 봐도 위계질서를 확연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절집에서도 세간과 마찬가지로 위계가 분명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7강 혜능의 대승 사과(四果), 혹은 돈교 사과

한문은, 특히 경전 계통의 한자는 과장하 자면 한 글자도 허부무 박한 죄가 없다. 그 시절엔 이름자 한 글자 잘못 붙었다고 살인 을 부르고, 책 한권 짝는데 집 한 채 같은 죽 히 들었다. 내가 보는 <금강경오가해> 목판 본만 해도, 상권과 하권 각각의 뒤면에, 기 부와 소임을 맡은 스님, 거사, 여인들의 이름이 수십명이 박혀 있다.

혜능 <구결>에 잘못된 글자가

지난 시간에 읽은 다음 육조의 원문에서 혹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모르겠다.

一六祖: 斯陀舍者梵語, 唐言一往來, 捨三界結縛, 三界結盡, 故名斯陀舍. 斯陀舍名一往來, 行從天上 卻到人間生, 從人間死 卻生天上, 竟出生死, 三界業盡, 名斯陀舍果. 大乘斯陀舍者, 目諸諸境, 心有一生一滅, 無第二生滅, 故名一往來. 前念起後, 後念即止. 前念有著, 後念即離, 實無往來. 故曰斯陀舍也.

그곳은 "斯陀舍名一往來, 行從天上 卻到人間生, 從人間死 卻生天上, 竟出生死," 안의 행(行)자이다. 종(從)에서 도(到)는 현대중 국어도 마찬가지고, "에서-에로"라는 뜻 이고 생(生)이 거기 동사를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행(行)자는 도무지 어색한 자리에 끼 어있다 싶었지만, 전체 문장의 의미에 크게

구애되지 않는다 해서 대충 지나갔었다.

머칠 전 정책 보고서 쓰다가 흐림해진(?) 머리로 목판본 <금강경오가해>를 우연히 들추다가 문득 마주친 곳이 있다. 책 끝에 편찬자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화상이 몇 군데 고증한 노트부본이었는데, 그는 여기 행(行)자가 자(者)자의 잘못표기인 듯하다고 적어놓았다.

나는 즉각 무릎을 쳤다. "아예 그걸 못 보 았을꼬, 아직 멀었네..." 틀림없이 본래 원 문은 "斯陀舍名一往來者, 從天上 卻到人間生, 從人間死 卻生天上, 竟出生死"였다. 여기 자(者)는 "…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개념 이나 문장을 한 단위로 뭉뚱그리는 역할을 한다. "사다함을 일왕래라고 이듬하는 것 은"이란 뜻이다. 영어로 말하자면, 절을 이 끄는 that의 위상에 해당한다. that도 "그것" 을 가리키고, 자(者)도 '것', '놈'이니 같은 사유의 패턴을 갖고 있어 흥미롭다.

처음 접하면 한문은 뜬어 읽기 바쁘다. 조금 익숙해지면, 틀린 글자라고 우기게 되며,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한 글자에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뒷부분을 굽는다. 지금 말이지만 한자 육편에 의지해서는 한문 을 읽고 번역할 수 없다! 다양한 용례에, 때 로 상상도 못한 의미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

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 지점 을 한 발 지나면, "정말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좀 더 지나면 틀린 곳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실제 필사의 과정에서 혹은 목판을 새기고 전송되는 과정에서 확 실히 빠지거나 비슷한 글자로 바뀌는 경우 가 적지 않다. 이것을 본적 다루는 것이 판 분학이다.

한하는 이와 함께, 혜능의 사다함 해설에 도 의문을 제기했다. "혜능은 지금 보듯 사 다함이 '천상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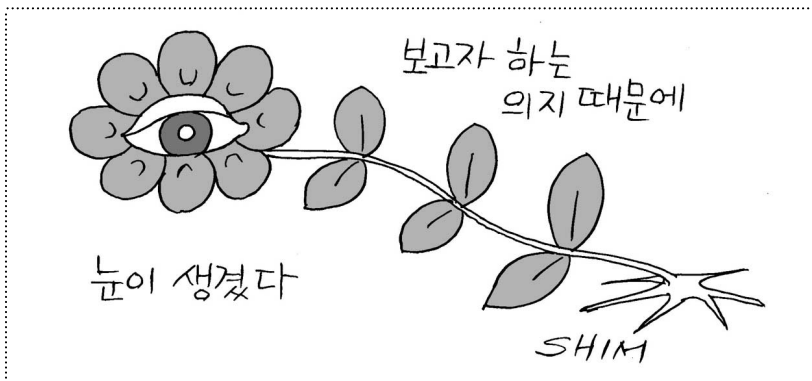
행복동 사람들

극락가는 법
배종훈 (bjh4372@hanmail.net)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고 있는대로 바르게 살면 되지요.

*이번호로 '행복동 사람들'을 마칩니다. 그동안 좋은 그림과 글을 주신 배종훈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호부터는 윤정운씨의 'I Love Buddha'가 연재됩니다.

아무것도 오고 가지 않는다



몇 편이 실려 있다. 거기 혜능이 <구결>의 총론, 혹은 원론도 함께 있는데, 그 첫머리 에, 혜능은 삶의 윤회에 대해, 그 추종의 메 카니즘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핵심은 의지이다. 그 의지로 하여 인간이 다음 생의 몸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설은 우리가 익히 들던 바이지만, 상식 합리적으 로는 좀 낯설다. 한때 쇼펜하우어도 똑같은 의 경지에서 삼계의 업은 그만 다 소멸된

하우어는 인간의 신체 기관이 의지(will)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볼 때, 마음은 동행다가 사라진다. 한번 동 행했다 사라지되, 더 이상 2차적 동행은 없는 것, 그것을 일러 대승의 '한번 오고 감'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삼념 하나가 망령되어 일어나더라도 다음 생각이 문득 그치고, 정념 하나가 집착에 빠지더라도 다음 생각이 그 열기를 문득 떠난다. 여기 더 이상 오간 것이 없다."

내 의식의 사다함

소승은 의지가 윤회를 부른다는 것을 강 조한다. '삶의 관성을 거슬러오르는(逆流)' 혼련과 함께 윤회에의 전변도 줄어든다.

대한 반성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바깥에 끌려 다닐 한심한 인생이 아닌 것이다." 사 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기망각 상태에 서의 분출하는 반응이 줄어들면, 그의 의식 은 점차 고요를 찾게 시작한다.

그때도 불꽃 불꽃 짐을 수 없거나, 혹은 이전의 관성들이 힘을 발휘하고도 한다. 한 번 추동된 것은 그러나 "아차, 이게 아니지" 하는 자각과 함께 더 이상의 증폭과 반복을 멈춘다. 혜능은 지금 이것을 사다함이라 부 르고 있다. "눈이 사물을 볼 때, 마음은 동행 다가 사라진다. 한번 동행했다 사라지되, 더 이상 2차적 동행은 없는 것, 그것을 일러 대 승의 '한번 오고 감'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삼념 하나가 망령되어 일어나더라도 다음 생각이 문득 그치고, 정념 하나가 집착에 빠지더라도 다음 생각이 그 열기를 문득 떠 난다. 여기 더 이상 오간 것이 없다."

아나됨은 그 후련이 익숙해지고 심화되 면서, 타자적 의식과 정념의 물거품이 더 이상 일지 않게 된 경지이다. 혜능은 이를, "욕망과 습기(習氣)가 영원히 제거된, 그리 하여 다시는 이 육계의 삶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이라고 했다.

그 곁에서 그는 사물과도 자신과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완전한 부동(不動)의 지위를 얻는다. 혜능의 표현을 빌리면, "더 이상 끊 어야할 번뇌도 없고(無煩惱可斷), 떠나고 버려야할 탐욕과 분노도 없고(無貪瞋可離), 사물에 대해 좋고 싫은 것도 없고(情無違 順), 자극과 반응이 함께 탈각한(心境俱空), 그리하여 안과 밖이 두루 고요 평안한(內外 常寂) 사람"이 아라한이다. 여기 유의할 것 이 하나 있다. 그가 만일 스스로 아라한의 과실을 성취했다는 자부와 자의식을 가지 고 있다면, 그는 정의(徒義) 상, 아라한의 지 위에서 범부로 관바로 끌려 떨어지고 만다.

■한국학중앙연구원